

증상과 목적에 맞는 고혈압 검사로 건강 지키기

고혈압 검사는 위험인자나 합병증의 평가와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태성 고혈압* 관련 검사와 이차성 고혈압의 원인 감별을 위한 검사로 나뉘볼 수 있다. 고혈압은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므로 정확한 측정과 검사가 치료와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차성 고혈압

글_이방헌 의학박사(『고혈압 진료 매뉴얼』 저자)



가장 손쉽게 내 혈압 체크하기!

혈압측정 검사



▼ 진료실혈압 측정

위팔동맥*에서의 정확한 혈압측정은 고혈압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 혈압은 기준에 맞는 혈압계를 이용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올바른 자세로 측정해야 한다.

* 겨드랑 동맥이 위팔로 계속 이어진 줄기

▼ 가정혈압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면 환자의 평소혈압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진료실혈압이 정상이더라도 가정혈압

이 높은 환자는 심혈관사고 위험이 두 배 높다. 측정시각과 측정방법(17P 참고)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지켜야 신뢰할 수 있는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 24시간 활동혈압모니터 검사

활동혈압 측정은 24시간 혈압을 휴대장치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주간에는 15~30분마다, 야간에는 30~60분마다 혈압을 자동측정하여 평균혈압과 혈압의 일중변동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심뇌혈관 사건을 예측하는 데 진료실혈압보다 우수해 고혈압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반드시 해보아야 할 기본검사



▼ 혈액 및 요검사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혈압과 함께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혈액검사를 통해 중성지방, HDL, LDL 등의 수치와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요검사는 혈압에 민감한 신장 이상 여부를 조기 발견해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요검사 결과 단백질(정상-1일 30mg 이하)이 증가하면 신장고혈압, 신장경화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당뇨병, 갑상선항진증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흉부X선 검사

직접적인 고혈압 진단을 위한 검사라기보다 심부전이나 좌심실비대 등 고혈압 합병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 심전도 검사

심장 관련 검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 피부에 전극을 부착해 심장의 전기신호를 기록하는 검사다. 고혈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좌심실비대와 부정맥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높은 내 혈압 급성일까 만성일까 추가검사



▼ 안저검사

고혈압이 지속되면 안구순환의 주요 세 부분(망막, 맥락막, 시신경)에 변화가 일어난다. 초기에는 망막에 허혈증상*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동맥경화가 나타난다. 안저검사를 통해 안저(동공을 통해 볼 때 확인되는 안구 안쪽면)에 분포된 망막 동맥의 경화 정도를 판정한다.

* 혈액의 흐름이 저하되면서 안구 내의 작은 혈관이 좁아지고 단단해지는 증상

▼ 심초음파

심초음파검사는 심장에 초음파를 보내어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몸속으로 기구를 삽입하지 않고 심장 내부 구조, 심장의 움직임 및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통증과 위험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비대와 심수축 기능 평가를 할 수 있다.

▼ 경동맥초음파

초음파 진단기구를 이용하여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의 혈관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이다. 혈관 내 혈전의 형성 여부와 함께 혈관이 좁아져 있는 정도, 죽상경화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혈압 환자의 위험도 평가 지표 중 경동맥의 내막중막두께 증가 또는 죽상경화반의 존재 여부는 환자의 예후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혈관 내막에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질환

이차성 고혈압 진단을 위한 특수검사



원인을 한 가지로 규명하기 어려운 본태성 고혈압은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반면, 이차성 고혈압은 특정한 질환이 원인이 된다. 특수검사는 이차성 고혈압의 진단 및 원인 감별을 위한 것으로 복부초음파(신장성 고혈압, 부신종양), 두부 CT(뇌하수체선종), 복부 CT나 MRI(부신종양, 신장이상, 대동맥축착증) 등의 방사선 검사가 있다. 또 부정맥이 의심되는 경우 홀터 심전도모니터*를 시행하고 허혈성심장질환**이 의심되면 운동부하 검사 또는 심근관류스캔을 시행한다.

* 24시간 동안 심장의 전기적 활동 상태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작은 기계를 휴대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심전도 변화를 관찰하는 검사

**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 근육에 혈액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질병